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곽 장 근*

〈목 차〉

- I. 머리말
- II. 운봉고원 제철유적 분포양상과 그 의미
- III. 가야 소국 기문국의 발전과정과 지역성
- IV.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기문국의 역동성
- V. 맺음말

국문요약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가 『山經表』로 백두대간으로 상징된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은 해발 500m 내외의 전형적인 고원지대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소국 기문국은 4세기 후엽 늦은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중엽 경까지 가야 소국으로 존속하였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서쪽 자연올타리 역할을 해 주었고, 백제와 가야의 문물교류 관문 이었고, 대규모 철산개발과 교역망을 통한 철의 생산과 유통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몰)무덤과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최상급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등 가야 소국들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철의 왕국 기문국에 보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 무령왕의 진출로 백제묘제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6세기 중엽 경 신라에 정치적으로 편입되었다. 운봉고원의 기문국 등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계 철의 왕국들이 백제 혹은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됨에 따라 철의 장인집단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 산경표, 백두대간, 운봉고원, 유곡리, 두락리, 기문국, 대가야

*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

I. 머리말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가 『山經表』¹⁾로 백두대간으로 상징된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근처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가 백두대간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한반도의 척추로서 다시 이곳에서 뻗어 나간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은 지역권 및 문화권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었다. 전북 구간에서 백두대간은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형성하였고,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는 행정경계를 이루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은 해발 500m 내외의 전형적인 고원지대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위치한다.²⁾ 그리고 신선의 땅으로 『鄭鑑錄』의 십승지에도 그 이름을 올렸으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전북 남원시 운봉읍·이영면·인월면·산내면이 여기에 속한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운봉고원의 서쪽 자연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봉화산³⁾에서 삼봉산⁴⁾까지 이어진 산줄기가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운봉고원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 운봉고원을 휘감은 산줄기 고갯마루 양쪽에 산성 및 봉수가 배치되어,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와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⁵⁾ 운봉고원은 수계상으로 남강유역에 속한다. 지리산 서북쪽 세절산 북쪽 금샘에서 발원하는 광천과 아영분지를 종단하는 풍천이 운봉고원을 풍요롭게 적셔주고 인월면 소재지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곳에서 실상사까지의 구간은 험준한 자연협곡을 통과한 뒤 산내면 소재지에서 지리산 달궁계곡을 지나온 만수천과 만난다. 여기서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그 폭도 넓어져 임천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

1) 조선 영조 때 실학자이자 지리학자 신경준에 의해 편찬된 전통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줄기의 흐름,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山自分水嶺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놓았다. 白頭大幹을 중심으로 長白正幹, 錦南湖南正脈, 湖南正脈 등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5개로 분류하였다. 1900년대 초 日帝에 의해 우리 곁을 떠났다가 1980년 서울 인사동 고서방에서 산악인 이우형이 조선광문회에서 발간한 영인본을 발견해 세상에 알렸다.

2)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2014.

3) 백두대간의 고봉으로 그 정상부에 장방형의 연대가 축조된 삼국시대 봉수가 자리하고 있다.

4) 전북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와 마천면 구양리 경계에 위치한다. 이 산의 동쪽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이 머물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빈대컬터인 축동마을이 있다.

5)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다산시문집』에서 “남도의 관방은 운봉이 으뜸이고, 추풍령이 다음이다. 운봉을 잃으면 적이 호남을 차지할 것이고, 추풍령을 잃으면 적이 호서를 차지할 것이며, 호남과 호서를 다 잃으면 경기가 쭈그러들 것이니,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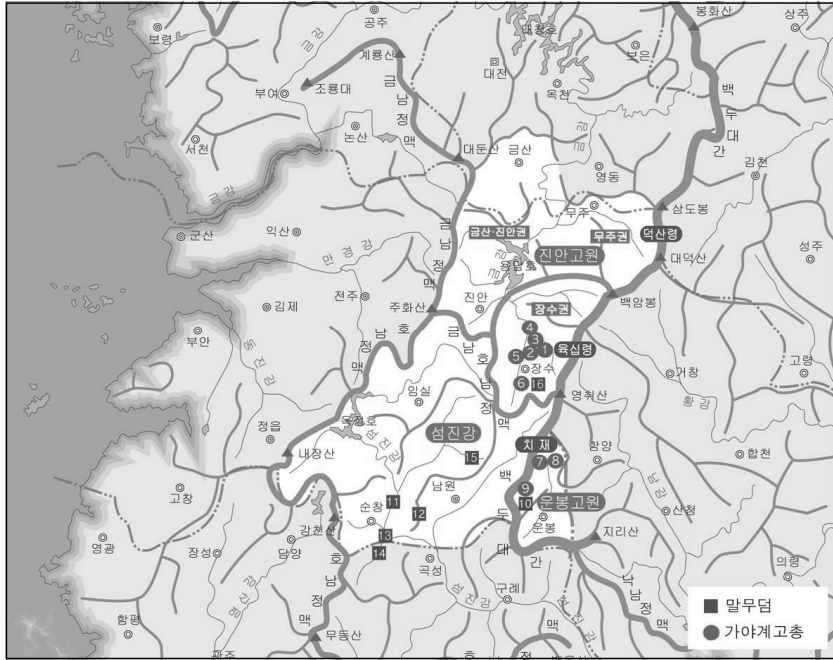


그림 1. 전북 동부지역 말(물)무덤 및 가야계 고총 분포도

(1. 장수 삼봉리 2 장수 호덕리 3 장수 월강리 4 장수 장계리 5 장수 화양리 6 장수 동촌리 7. 남원 월산리 8. 남원 두락리 9. 남원 입리 10. 남원 장교리 11. 순창 고원리 12. 남원 입암리 13. 남원 방산리 14. 곡성 주산리 15. 남원 도룡리 16. 장수 노곡리)

리는데, 이 강은 줄곧 동남쪽으로 흘러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 본류로 들어간다.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룬 연비산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가 전북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 행정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를 중심으로 남쪽 유곡리와 북쪽 두락리에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골고루 분포되어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분묘유적에서 아영분지를 종단하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1.5km 가량 떨어진 구릉지에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 있는데, 본래 이곳에는 1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었다. 최근에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 서쪽 반달모양 산줄기 정상부에서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 운봉고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말(물)무덤과 가야계 중대형 고총은 180여 기에 달한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이 분묘유적의 동쪽 구릉지 정상부에는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유곡리

토성과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남쪽 계단식 논에는 가야세력의 건물지와 관련된 생활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운영주체를 단정할 수 없지만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에 의하면 운봉고원 가야세력과의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와 전북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 경계에 王嶺이 있는데, 운봉고원 내 가야세력의 왕이 주로 오갔던 고개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삼국시대 때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가야계 정치체가 존재했음을 반증해 준다.

운봉고원은 또한 대규모 철산지였다.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운봉고원에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⁶⁾ 아직까지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운영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부터 기문국을 거쳐 후백제까지 철산개발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운봉고원 내 가야계 고층에서 나온 철기유물을 근거로 운봉고원이 당시 철의 테크노밸리로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철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도 운봉고원이다. 종래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서 축적된 운봉고원의 고고학 자료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의 세계유산 가치를 규명하려고 한다. 아직은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후백제의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논리의 비약이 적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II. 운봉고원 제철유적 분포양상과 그 의미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운봉고원의 철광석이 서로 만나 새롭게 탄생된 것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다. 조선시대 십승지이자 신선의 땅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운봉고원은 한마디로 철광석의 산지이다. 바꾸어 말하면 백두대간 속 지붕 없는 철광석 박물관이다. 운봉고원의 철광석은 니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철광석 중 최상급으로 평가받는다. 최근까지 진행된 지표조사를 통해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운봉고원에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두대간 노고단에서 삼봉산까지 그 분포 범위가 25km에 달한다. 지금도 운봉고원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 제철

⁶⁾ 광장근·유영춘,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 호남고고학회, 2012.

유적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해 봄 가뭄이 심해 달궁계곡 철광석이 뽑어낸 진한 황갈색의 녹물이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데 고고학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요구되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를 중심으로 남쪽 하점골과 서남쪽 봉산골, 서쪽 심원계곡, 북쪽 언양골, 동북쪽 외얏골이 여기에 해당된다. 남원 하점골 제철유적은 철광석의 채광부터 솥을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추출해 내는 제철공정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 이제 막 문을 연 철의 유적공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제철유적의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 대자연의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백두대간 고리봉에서 세걸산을 지나 덕두산까지 이어진 산줄리 양쪽에도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남원시 운봉읍에서 지방도를 따라 정령치 방면으로 가면 선유폭포에 도달하는데, 그 부근에 슬래그(쇠똥)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으로 쇠똥의 분포 범위가 1.5km 내외로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세걸산 서쪽 금세암골에도 제철유적이 있는데, 수철리라는 마을 지명도 제철유적에서 유래되었다.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지명으로도 제철유적의 존재를 암시해 주었다. 운봉고원 일대에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기문화의 출발지는 어디였을까?

기원전 202년 제나라 田橫이 군산 어청도로 망명해 왔는데, 춘추 5페이지가 전국 7웅의 최강국 제나라는 ‘東鹽西鐵’로 대변된다. 전횡은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자 두 명의 형제, 측근과 병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군산 어청도로 망명해 왔다고 한다.⁷⁾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도 전횡장군사당이 있으며, 해마다 음력 2월 14일 외연도 당제에서 풍어의 신으로 전횡을 제사 지내고 있다. 외연도 동쪽 녹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사당의 주신으로 전웅대감(전횡대감)을 공경한다. 군산 비응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전횡이 쓰던 칼이 사당 내에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군산의 담양 전씨는 전횡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 1926년 濰東廟를 건립하고 그를 배향하고 있다.

기원전 194년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배를 타고 남쪽으로

7) 1975년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상림리에서 26점의 중국식 동검이 나왔는데, (全榮來, 『完州 上林里 出土 中國式 銅劍에 關하여』, 『全北遺蹟調查報告』 第6輯, 全羅北道博物館, 1976) 이들 동검을 만드는데 사용된 원료가 중국산이 아닌 국산으로 밝혀져 큰 관심을 끈다.

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았는데, 당시 준왕이 상륙한 곳이 금강 하구 나리포라고 한다. 이 포구 주변에 공주산과 아래산성, 도청산성에 준왕의 남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풍부하다.⁸⁾ 당시 나리포에 도착한 준왕은 산을 넘어 익산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준왕의 딸이 머물렀던 산을 공주산이라고 불렀고, 준왕이 딸을 데리러 왔다고 하여 공주산 앞쪽 산을 御來山이라고 부른다. 준왕은 바닷길로 나리포에 도착한 뒤 만경강유역의 익산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8년의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철기문화를 가진 전횡과 준왕이 바닷길로 만경강유역에 정착함으로써 이곳을 한반도의 테크노밸리로 만들었던 것 같다.⁹⁾ 전북혁신도시에서 중원문화와 서북한 지역 문화가 공존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⁰⁾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마한의 왕이 피난지로 삼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첩첩산중으로 유명한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이다.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지리산 뱀사골계곡 서쪽에 달궁계곡 달궁터가 있다. 지리산 달궁계곡의 달궁터와 백두대간의 정령치·성삼재, 팔랑치가 마한의 왕과 관련된 지명들이다.¹¹⁾ 그리하여 마한 왕의 전설이 깃든 지리산 달궁계곡의 ‘궁’자는 경복궁처럼 함자를 쓴다. 다행히 달궁터, 정령치 등과 관련된 기록이 남원읍지인 『용성지』 및 『여지도서』에 실려 있는데,¹²⁾ 그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황령과 정령은 둘 다 지리산 기슭 입세에 있으며, 몹시 가파르고 험하여 소나 말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서쪽으로 남원부까지는 50리 쯤 된다. 옛 승려 청허당의 황령기에는 “옛날 한 소제 즉위 3년에 마한의 임금이 진한의 난을 피하여 이곳에 와서 도성을 쌓았는데, 그 때 황·정 두 장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고 고개를 지키게 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성으로 고개 이름을 삼았다. 그 도성을

8) 전북 군산시 임피면 소재지 서북쪽 용천산성은 동쪽 골짜기를 아우르는 포곡식으로 고조선 준왕이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9) 곽장근,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제52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5.

10) 한수영,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 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11) 지리산 달궁계곡 서쪽 관문인 성삼재는 성이 다른 세 사람의 장수들이 지킨 고개라는 뜻이다. 달궁계곡 서북쪽 팔랑치는 8명의 젊은 남자들이 달궁계곡 달궁터로 향하던 고개를 지킨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12) 남원의 읍지 『龍城誌』古蹟條에 의하면, “黃嶺鄭嶺 并在智異山初麓 皆極險峻 牛馬不通之地 西距府五十里許 古釋清虛堂黃嶺記曰在昔漢昭帝即位之三年 馬韓主 避辰韓之亂 築都城於此以黃鄭二將 監其事守其嶺 故遂以二人之姓姓其嶺 保其都城者七十一年也云 頽城毀壁 今猶存焉 其所云都者則世傳達宮其也 在二嶺之內長谷 中古以南原地 今屬雲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지한 것이 71년이었다.”고 하였다. 지금도 무너진 성과 허물어진 벽이 남아 있으며, 그 도성이었다는 곳을 세상에서는 달궁터라고 전한다. 두 고개 안에 있는 골짜기가 이전에는 남원 땅이었으나 지금은 운봉에 속한다.

그런데 청허당 서산대사가 쓴 황령기의 핵심 내용은 중국 한나라 때인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진한의 침공을 받아 지리산으로 피난하여 도성을 쌓고 그 도성을 71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 정 두 장수들로 하여금 성 쌓는 일을 감독하고 고개를 지키도록 하여 고개의 이름도 두 장수의 성을 쫓아 黃嶺, 鄭嶺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지표조사를 통해 마한의 왕과 관련된 달궁터와 정장군이 성을 쌓고 지킨 정령도 그 위치가 파악되었다. 문헌 속 마한 왕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유적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더해 준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달궁터는 밭으로 개간된 것을 제외하면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¹³⁾ 지금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 주차장을 만들면서 달궁터의 대부분을 내 주고 일부 남은 왕궁터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 최근에는 정령치 동쪽 기슭 중단부에 자리한 절골이 달궁터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가장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진 절골은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아직까지 지리산 달궁계곡의 달궁터를 제외하면 마한의 왕궁터가 확인된 곳은 없다. 그만큼 달궁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삼국지』 위치 동이전 한조에는 54개의 소국이 마한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국들은 대체로 현재 시·군 단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껏 마한 왕의 달궁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과 조성연대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마한의 소국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철기시대 때 최고의 테크노밸리였던 전북혁신도시가 그 출발지였을 것¹⁴⁾으로 추측된다.¹⁵⁾ 전북 동부지역 가야계 고총의 묘제가 마한 분구묘와

13) 全北大學校 博物館, 『南原地方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全北地方 文化財 調査 報告書 第6 輯, 1987.

14) 전상학, 『마한·백제시대의 전북혁신도시』,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호남고고학회, 2016.

15) 1975년 만경강유역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상림리에서 나온 26점의 중국식 동검을 남긴 제나라 전횡의 선진세력과의 연계성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다. 완주 상림리 중국식 동검은 망명에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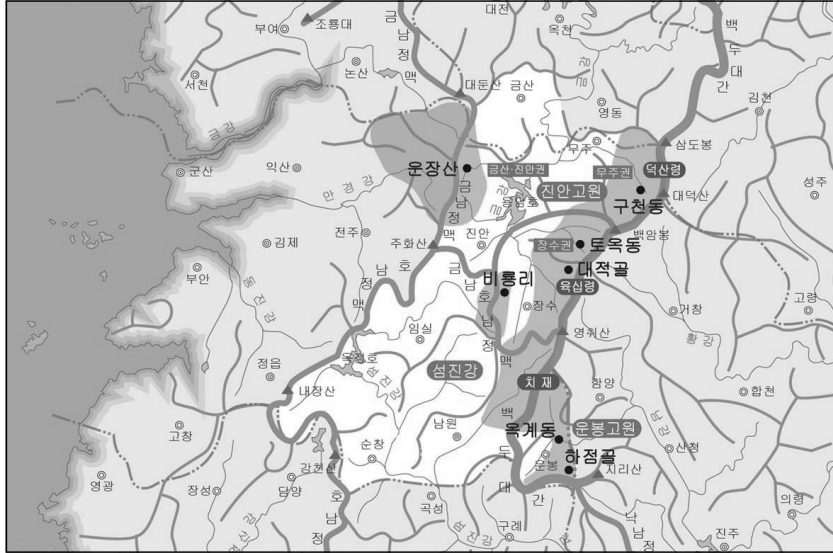


그림 2.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도 및 주요 제철유적 위치도

의 연관성을 맺은 본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백두대간의 정령치에서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정장군이 쌓은 성터가 발견되었다. 남원시 운봉읍과 산내면에 속한 달궁계곡을 잇는 큰 관문이 정령치이다. 최근에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대는 정령치 정상부에 성벽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현재 정령치 서쪽 기슭에는 흙과 돌을 가지고 골짜기를 막은 토석 혼축성과 고리봉으로 오르는 서쪽 기슭에는 돌만을 가지고 쌓은 석성이 있다. 석성의 성벽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만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았는데, 성벽의 축성방법이 매우 조잡하여 삼국시대의 석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의 석성과는 그 축조기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정장군이 쌓은 정령치의 석성은 달궁계곡의 달궁터를 한 바퀴 휘감아 문헌의 내용대로 달궁터를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축조된 석성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은 황장군이 쌓은 황령치는 그 존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백두대간의 노고단과 삼도봉 사이 임결령이 황령치로 추정된다. 백두대간의 임결령은 달궁계곡에서 곧장 남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고개이다. 현지조사 때 정령치에서 성벽이 발견되어, 기원전 84년 마한 왕의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과 달궁터에서 7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구전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개연성¹⁶⁾을 높였다.

공한 전횡 세력이 토착화하기 이전에 제사를 지낸 뒤 매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한 왕의 달궁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철유적이다. 마한의 왕이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을 떠나기 훨씬 이전에 전북혁신도시에 철기문화가 전래되어,¹⁷⁾ 만경강유역에서도 철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전북혁신도시는 경기도, 충청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철기문화가 시작되어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마한의 왕이 달궁계곡에서 7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제철유적이 처음 개발됐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에는 논과 밭이 거의 없는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삼국시대의 철산지를 연구하는데 『일본서기』 신공기 52년조의 기사가 자주 인용된다.

칠지도 1구와 칠자경 1면 및 각종 귀한 보물을 받쳤다. 이어 말하기를 “신의 나라 서쪽에 강수가 있는데, 근원은 谷那鐵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먼 곳은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합니다. 마땅히 이 물을 마시면 곧 이 산철을 채취할 수 있으므로 길이 성조에 받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문헌의 핵심 내용은 372년 백제 근초고왕이 곡나철산에서 생산된 철을 가지고 칼, 거울 등 여러 가지 귀한 보물을 만들어 왜의 조정에 보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곡나의 지명 음상사에 근거를 두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곡나철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황해도 곡산설·안협설, 충주설, 여주설, 보은설 등이 있다. 2012년 섬진강유역에 속한 곡성설¹⁸⁾이 발표된 뒤 역사학계의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전남 곡성군에서는 제철유적의 존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태까지는 지명의 음상사와 철산지를 서로 연결시켜 그 위치를 비정했기 때문에 문헌의 핵심 내용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런데 백제의 도읍에서 7일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고 강의 발원지를 거느리고 있다는 두 가지의 내용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자연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곳이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이다. 조선시대 이몽룡이 남원에 암행어사로 출도 할 때 서울에서 남원까지 7일이 소요되었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전주 경기전까지 이송하는데 6일 쯤 걸렸다. 그리고 전주에서 남원까지는 하루를 더 가야한다. 운봉고원은 또한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과 섬진강 발원지

16) 면담조사 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령치 북쪽 구릉지에서 밭 개간과 경작활동을 하는 과정에 석로 만든 화살이 많이 나왔었다”는 달궁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그 역사성이 입증되었다.

17) 전북혁신도시 철기문화의 시작과 관련하여 학자에 따라 얼마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만경강유역으로 철기문화의 전래와 관련해서는 제나라 전횡의 망명과 고조선 준왕의 남래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18) 李道學, 『谷那鐵山과 百濟』, 『東아시아 古代學』 제25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11.

를 함께 거느린다. 문헌 속 두 가지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곳이 대규모 철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운봉고원이다. 동시에 운봉고원의 철은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니켈 철이다.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계 토기류가 가장 일찍 출현하는 곳이 운봉고원이다. 남원 월산리·행정리 수혈식 석곽묘에서 백제계 광구장경호가 출토됐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4세기 말엽 늦은 시기로 비정되었다. 아마도 한성기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잇는 간선교통로인 백두대간 치재로¹⁹⁾가 운봉고원을 통과하는 지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깊다. 남원 월산리 M1-A호에서 나온 금은새김 고리자루 칼에서 최고의 철기제작기술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최근 대규모 철산지이자 철의 테크노밸리로 이목을 집중시킨 운봉고원이 谷那鐵山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과 철광석, 슬래그는 인간의 DNA처럼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료의 과학적인 분석이 요망된다.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언제부터 개발되었는지, 아직은 기록이 없고 발굴조사도 매우 미진하여 그 시기를 속단할 수 없다. 삼국시대 때 철산개발은 어느 집단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경제적인 원동력의 하나로 해석²⁰⁾되고 있다. 그리하여 제철유적을 장악했던 가야 소국들은 대부분 중심세력으로 발돋움하였다.²¹⁾ 『세종실록지리지』에 67개소, 『동국여지승람』에 83개소의 철산지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은 한 곳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문헌에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후백제 멸망과 함께 철산개발이 일시에 중단됐을 것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운봉고원 속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에 가야계 고층을 남긴 기문국에 의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운영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교역망을 이용하여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다량의 철이 각지로 유통된 것이 아닌가 싶다. 마한의

19) 당시의 백두대간 치재로를 복원해 보면, 한성-광주-이천-진천분지-청주분지-대전분지-세고개-금산분지-술치-진안-와정토성-진안-월계리-산성-진안-여의곡-진그늘-갈머리 유적(광대재-진안군-주천면-운봉리-탁고개)-대목재-진안읍-금남호남정맥-밀목치-마령분지-진안군-백운면-대운치-임실-월평리-산성-한치재-임실군-지사면-관기리-말치고개-장수군-변암면-노단리-치재-남원-월산리-두락리-남원시-인월면-남원-실상사-산청군-생초면-산청-진주-함안-김해로 이어진다.

20) 朴天秀, 『大伽耶의 古代國家 形成』, 『碩儒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儒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6; 盧重國, 『大伽耶의 성장기반』, 『大伽耶의 成長과 發展』, 高靈郡·韓國古代史學會, 2004.

21) 申鍾煥, 『陝川 冶爐와 製鐵遺蹟』, 『陝川 冶爐 冶鐵地 試掘調査報告書』,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

왕부터 시작된 철 생산이 기문국의 등장과 함께 더욱 본격화되면서 운봉고원이 가야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렇다면 백제의 위세품을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등 최상급 토기류가 공존하는 것은 운봉고원의 철 생산과 유통을 반증해 준다. 그만큼 운봉고원의 철은 니켈이 함유된 최고의 철이다.

그렇다면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등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앞 다투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운봉고원에 보낸 것 같다.²²⁾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토기류도 ‘가야토기박물관’을 방불케 했는데,²³⁾ 당시에 철의 생산과 유통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해 주었다. 한마디로 신선의 땅으로 유명한 운봉고원은 지붕 없는 철 박물관이다. 백두대간 속 운봉고원은 철산개발로 백제와 가야, 신라의 문물이 하나로 응축된 국내문화교류의 허브였다. 따라서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은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기문국의 보물창고이자 기문국의 발전상이 올곧게 담긴 블랙박스 와 같은 것이다.

Ⅲ. 가야 소국 기문국의 발전과정과 지역성

요즘 고고학계의 이목이 온통 철산지 운봉고원으로 쏠렸다. 2010년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에 위치한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제 청자인 鷄首壺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²⁴⁾으로 알려진 최상급 威勢品の 하나로 종전에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鐵製鏃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꽃이 등 가야계 威身財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위세품 박물관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獸帶鏡과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수대경, 철제초두, 계수호는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들이다. 중국

22) 미국 코넬대 이승래 교수는 운봉고원의 철을 확보하기 위해 기문국으로 보낸 물품 가운데 쌀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을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23) 운봉고원에서 대가야·소가야 양식 토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이 대가야·소가야로 널리 유통되었음을 말해준다.

24) 박순발,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단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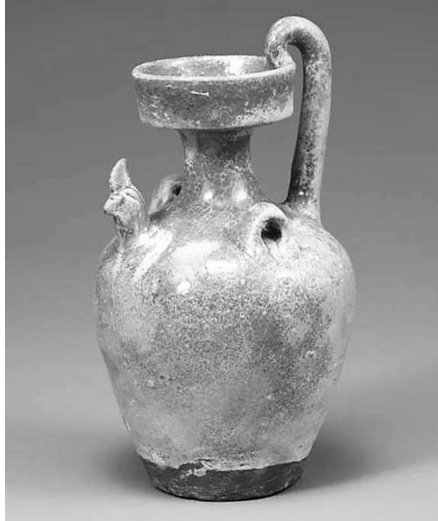


그림 3.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계수호

남조에서 만들어진 수대경은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앞서는 것으로 가야와 중국 남조와의 국제외교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었다. 더욱이 계수호는 일상용품이 아닌 부장용품이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보다 오히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중국 남제에서 직접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²⁵⁾가 발표되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제외하면 가야계 최고의 위세품이 대부분 전북 동부 지역 내 운봉고원에서 나왔다. 가

야계 고층에서 최초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남원 월산리에서 금동신발과 청동거울이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운봉고원의 역사성과 함께 그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은 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층 중 봉토의 직경이 7번째 크기에 해당된다. 올해 하반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23호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3년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나온 금동신발은 백제가 철 산지이자 문물교류의 관문으로써 운봉고원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운봉고원 철의 생산과 유통이 담긴 물물교역, 즉 현물경제의 증거물²⁶⁾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을 己汶國으로 부르려고 한다.²⁷⁾ 중국, 일본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가야 소국이 기문국이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물)무덤과 가야계 중대형 고층이 무리지어 가야문화를 토대로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정치체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다.

25) 李軍, 『鷄首鞞壺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2017.

26) 백제도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을 확보하기 위해 백제왕이 금동신발을 기문국에 하사품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다.

27) 기문국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려고 한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그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은 1982년이다. 그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공사에 포함된 가야계 고층에 대한 구체발굴이 이루어졌다. 백제의 대형고분일거라는 고고학자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그 조영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남원 월산리에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 동부지역은 모두 백제문화권에 속한 곳으로만 인식됐기 때문이다. 남원 월산리는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명소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원 월산리에는,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계 고층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1990년대 농지정리사업으로 3기의 고층이 모두 유실되었고,²⁸⁾ 1982년²⁹⁾과 2010년 두 차례의 구체발굴을 통해 그 전모가 파악되었다. 지금은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가 노출된 상태로 M6호분은 원형의 봉토가 정비 복원되어 있다. 최근에는 월산리 서쪽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서 1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층이 더 분포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00년 전 기문국의 지배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돌로 매장공간을 만들었는데,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그 길이가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의 가야계 고층들보다 큰 편이다. 가야계 고층에서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당시에 繼世思想이 널리 유행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사후세계에도 현실세계와 똑같은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상이 녹아있다. 그리하여 봉토의 직경과 매장주체부의 크기는 가야세력의 국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봉고원에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기문국의 발전상을 뒷받침해 주는 유일무이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지만 산줄기 정상부가 아닌 구릉지에 입지를 두어 다른 가야계 고층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원 월산리는 가야계 고층군의 입지 뿐만 아니라 매장주체부가 반지하식으로 마한 분구묘 묘제와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동부지역 가야계 고층의 묘제 전통이 마한 분구묘에서 승계됐음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³⁰⁾ 앞장에서 이미 설명한 마한 왕의 지리

28) 본래 구릉지 정상부에 입지를 둔 남원 월산리 M7호분·M8호분·M9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29) 당시에 M1호분·M2호분·M3호분은 서로 봉토가 중복된 상태로 조사되었는데, 종래에 가야의 영역 중 장수 삼봉리, 고성 송학동에서 학계에 보고된 연접분으로 추정된다.

30)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2017.

산 달궁계곡으로 피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백두대간의 봉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풍천은 아영분지의 중심부를 줄곧 남쪽으로 흐르다가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풍천교에서 광천과 만난다. 운봉고원의 아영분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아영면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인월면 유곡리·아영면 두락리가 있는데, 이곳에도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³¹⁾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룬 연비산에서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어내린 산줄기와 다시 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에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되는 대형급 고총이 자리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비산에서 서쪽으로 아영분지 중앙까지 뻗어내린 산줄기가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가야계 고총은 산줄기 양쪽에 반절씩 분포되어,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유적에는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계 고총도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당시에 철의 왕국 기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융성했다는 발전상도 말해준다. 그리고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상당 기간 동안 존속했음을 방증해 주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계 고총은 구릉지에 입지를 둔 남원 월산리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운봉고원 내 기문국의 수장층 분묘유적이 월산리에서 유곡리·두락리로 옮겨진 이후 대가야 등 가야 소국과 결속력이 더 강화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고총의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³²⁾가 숨어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이 구릉지와 평지, 백제가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 왕릉을 조성한 것과 다르다. 아마도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문화와 장례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운봉고원에서 발견된 말(말)무덤³³⁾과 가야계 중대형 고총은 그 기수가 180여 기에 달한다. 남원 입암리 말(말)무덤 발굴조사

31) 면담조사 때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주민들이 “본래 고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1960년대 밭을 개간하거나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과정에 많은 고분의 봉분이 없어졌다”고 증언해 주었다.

32) 金世基,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

33) 이때 말(말)무덤은 말이 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파악하여 그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층으로 짐쳐진다. 흔히 말사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벌을 왕벌로 부르는 것과 똑같다.

에서 마한의 지배층 분구묘로 밝혀진 말(몰)무덤이 운봉고원의 운봉읍에서만 발견되었다.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구릉지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10m 내외되는 7기 내외의 몰무덤이 있었는데, 오래전 농경지 개간으로 대부분 유실되었고, 현재 3기만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논 속에도 마치 섬처럼 한 기의 말(몰)무덤이 더 있다. 아직도 남원 장교리 몰무덤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문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조성된 마한의 분구묘로 판단된다.



그림 4.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철제초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71년 동안 철산개발로 국력을 키운 마한 왕이 백두대간 정령치를 넘어 남원시 운봉읍 일대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원 장교리 말(몰)무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운봉읍 임리에도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뺏어 내린 산줄기 정상부에 봉토의 직경이 15m 내외되는 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모여 있다. 마한의 말(몰)무덤과 가야계 고총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본래 운봉읍에 있었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아영분지로 옮겨진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곧장 이어주던 한성기 간선교통로인 백두대간 치재로가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³⁴⁾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 일대에 있었을 때는 백두대간의 여원치가 섬진강유역과 교류하는데 관문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운봉고원 서쪽 섬진강유역에서 말(몰)무덤은 남원 도룡리·입암리·방산리, 순창 고원리, 곡성 주산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본래 30여 기의 말(몰)무덤이 섬진강 중류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섬진강 상류 및 하류지역에서는 말(몰)무덤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말(몰)무덤이 자취를 감춘 이후 섬진강유역에서는 수장총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더 이상 조영되지 않았다. 말(몰)무덤의 존재와 그 발전과정을 근거로 섬진강유역으로 백제의 진출이 5세기 이전 근초고왕의 남정 때 이미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5세기를 전후하여 기문국의 등장과 함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

34) 곽장근,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2011.

봉읍에서 아영분지로 이동한다. 본래 운봉읍에 있었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아영분지로 옮겨진 것은, 운봉고원으로 백제의 진출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장에서 언급한 칠지도의 제작 시점을 泰和 4년 369년이라고 한다면, 369년 3월 근초고왕의 남정을 기준으로 꼭나철산의 장악과 칠지도의 제작 및 왜로의 전래가 시간상으로 대부분 충족된다. 이 무렵부터 백제의 중앙과 가야를 이어주던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백두대간의 치재를 통과하면서 당시에 치재³⁵⁾가 운봉고원의 관문으로 그 몫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백두대간 치재를 넘던 옛길을 옛날고속도로라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나라에 신작로가 생기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치재를 넘어와서 일을 보고 다시 치재를 넘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동시에 백제와 가야를 하나로 묶는 문물교류의 교섭창구이자 내륙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면서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한마디로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산지로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을 갖춘 곳이었다.

이를 발판으로 가야 소국으로 발전했던 철의 왕국 기문국은 세 가지 점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하나는 봉토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주체부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다른 하나는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았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주체부가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³⁶⁾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벽석의 축조방법, 개석 혹은 벽석 사이에 점토 바름, 바닥시설, 장축방향 등 유구의 속성에서도 남원 월산리와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서로 상통한다. 그렇다면 마한 분구묘의 묘제적인 전통이 기문국까지 지속된 것으로 사료된다.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생초·중촌리,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계 고총은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금강유역에 속한 장수 삼봉리·동촌리를 제외하면, 다른 가야계 고총군은 모두 남강 중류지역에 집중되어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한다. 아마도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했던 가야 소국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문국이 상·중·하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문헌의 내용³⁷⁾과 관련성이 깊을

35) 전북 남원시 아영면 성리와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경계로 운봉고원 서북쪽 관문이다.
 36) 남원 유곡리·두락리·월산리,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성 송학동에서 확인된 지역성이 강한 묘제로써 마한 묘제와의 연관성이 높다.
 37) 『신찬성씨록』 좌경황별화 길전연조에 “신국의 동북에 三巴汶[上巴汶·中巴汶·下巴汶]의 땅이 있는데 사방 삼 백리 정도 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것으로 추정된다.

합천 봉계리 등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계 고총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면 가야계 고총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 되는 경향³⁸⁾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봉고원 내 남원 유곡리·두락리의 경우만 유일하게 봉토의 규모와 매장주체부가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시기의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다. 아울러 가야계 고총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철기유물이 모두 나왔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구 등 대부분 철기류가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³⁹⁾는 점이다. 동시에 기문국 지배자의 시신을 모신 목관에 사용된 껍쇠는 기문국의 수장층 혹은 지배자와 관련이 있는 가야계 중대형 고총에서만 나왔다. 기문국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련기술 뿐만 아니라 무쇠를 두드려 철제품을 가공하던 주조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철의 테크노밸리였다.⁴⁰⁾

운봉고원의 가야계 고총에서 최초로 나온 금동신발과 수대경은 기문국의 대외교류가 왕성하게 펼쳐졌음을 방증해 주었다. 전자는 양쪽에서 동판을 두드려 티끌기법으로 마름모 문양을 표현했는데, 유물의 속성이 익산 입점리 횡혈식 석실분, 나주 신촌리 대형 옹관묘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과 유사하다. 후자는 주석곽의 머리 부분에서 나왔는데, 앞면에는 주철과 포목, 나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더욱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수대경보다 30년 남짓 앞서 부장된 것으로 월산리에서 나온 계수호와 함께 바닷길로 남제와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479년 가라왕 하지가 고령을 출발해 섬진강루트를 거쳐 하동 다사진에서 바닷길로 남제와 국제외교를 펼쳤다는 견해⁴¹⁾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중국계 유물이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되지 않았지만, 운봉고원의 기문국에서는 당시의 계수호⁴²⁾ 수대경 등의 남조 유물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진강 하구의 국제교역항인 가야포를 출발하는 바닷길로 기문국이 남제와의

38) 李熙濬,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

39) 이영범,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금속유물의 제작기법」, 『東垣學術論文集』 14, 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3.

40) 유영춘,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제51집, 호남고고학회, 2015.

41) 田中俊明, 『大伽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이희준,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42) 닭 머리 부분이 막힌 명기, 즉 부장용품이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보다 기문국 사람들이 직접 남제에 가서 구입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중국학자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주적인 국제외교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루트⁴³⁾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교통로의 필수 조건인 경제성과 신속성, 안정성도 두루 갖추고 있다. 동시에 남해안, 서해안의 바닷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중국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다는 지형학적인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운봉고원 내 가야계 고층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바뀐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산줄기 남쪽 기슭 제일 하단부에 위치한다. 봉토의 중앙부에 축조된 석실은 아래쪽이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천정석으로 덮었다. 연도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한다.⁴⁴⁾ 급기야 가야계 중대형 고층의 내부 구조가 백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⁴⁵⁾에는 수혈식에서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⁴⁶⁾ 이처럼 가야계 고층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바뀌는 것은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음을 말해준다.⁴⁷⁾

남원 유곡리·두락리 5호분에서 나온 은제목걸이와 은제구슬, 유리구슬, 탄목구슬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의 친연성도 흥미롭다. 기문국의 가야계 고층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백제계 유물이 상당량 나왔기 때문에 백제 웅진기 이른 시기부터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이 운봉고원에 강하게 미쳤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⁴⁸⁾ 다시 말해 운봉고원을 통과하던 백두대간의 치재로를 따라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 본격 진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만큼 백두대간의 치재로는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던 삼국시대 문물교류의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에서 만들어진 니켈이 함유된 양질의 철도 백두대간의 치재로를 따라 널리 유통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43) 이 경로를 복원해 보면, 운봉고원-백두대간 치재-임실 금성리-호남정맥 가능정-가야포로 이어진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와 인접된 부안 옥여 분구묘에서 가야토기와 판상철부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을 높였다.

44)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의 연도 길이가 382cm로 긴 것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의 특징이다.

45) 남원 두락리 2호분에서 2~3인분의 인골이 수습된 것은, 옥천 관산성 전투 이후 운봉고원이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6세기 중엽 경까지 장례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고분의 구조는 묘제를, 신라의 단각고배는 장제를 의미한다.

46) 공주 송산리 3호분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에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거쳐 가야 영역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7) 백제는 기문국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킨 뒤 백제의 기술자를 기문국에 파견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남원 두락리 2호분은 가야의 영역에서 학계의 보고된 궁륭상 횡혈식 석실분 중 고분의 축조기법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48) 郭長根,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書景文化社, 1999.



그림 5. 남원 봉대리 2호분 출토 토기류 모음

남원 임리에서도 백제묘제의 수용이 확인되었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동남 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임리 1호분은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배치되었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순장곽이 자리한 다곽식이다. 주석곽은 산줄기와 평행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그 출입구가 남쪽에 마련된 횡구식이다.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주석곽의 내부구조가 바뀌었고, 유구의 장축방향에서도 백제묘제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즉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묘제가 가장 일찍 수용된 곳이 운봉고원이다. 그만큼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백제의 선진문화와 선진문물이 가야 영역으로 전파되는 큰 대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백제는 512년 任那四縣, 513년부터 3년 동안 己汶, 帶沙⁴⁹⁾를 두고 가야 소국 반파와 갈등관계에 빠진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 소국 반파와의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복속시켰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철의 왕국 기문국이 521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백제는 기문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554년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일시에 상실한다. 운봉고원의 주인이 가야계 기문국에서 백제로 다시 신라로 바뀐 것이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 아영면 봉대리 2호분에서 나온 신라의 단각고배가 6세기 중엽 경 운봉고원 일대가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됐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밖에도 진안고원에 속한 금산 장대리, 진안 승금리에서 신라의 단각고배가 나왔다. 단각고배는 배부와 각부의 비율이 3:1 정도로 그 시기가 무령왕릉의 연

49) 섬진강 본류에 요천·수지천·곡성천 등 여러 갈래의 지류들이 합류하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일대로만 다시 설정하였다.

대(523~529)보다 늦고 대가야의 멸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2년 대가야를 비롯한 백두대간 동쪽 가야 소국들이 모두 신라에 정치적으로 편입되면서 마침내 백두대간 산줄기에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백제 무왕 때 20년 이상 백두대간에서 지속된 신라와의 아막성 전쟁도 운봉고원의 철산지를 탈환하기 위한 ‘철의 전쟁’이었다. 백제 무왕은 즉위 3년 만에 4만의 군대를 동원 신라 아막성을 공격했지만 크게 졌고, 616년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624년 백두대간을 넘어 운봉고원을 다시 백제에 예속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경남 함양까지도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제 무령왕의 가야 소국 기문국의 정치적인 복속과 한 세기 뒤 신라와의 아막성 전투는 대규모 철산인 운봉고원을 탈환하려는 백제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목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IV.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기문국의 역동성

선사시대부터 줄곧 문화상으로 접이지대를 이룬 섬진강유역은 백제 백성의 쇠퇴지로 접혀진다. 섬진강유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야와 백제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백제 무령왕은 초기에 피폐해진 농가경제를 회복하고 농업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두 가지의 경제정책⁵⁰⁾을 펼쳤다.⁵¹⁾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성을 추쇄해 오는 ‘人口推刷策’은 인구과약과 함께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제 백성들을 대상으로 絶貫한지 3~4대가 지난자들까지도 쇠퇴대상에 포함시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가야지역⁵²⁾으로 도망간 백제 백성의 쇠퇴지로 섬진강유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삼국시대 완충지대인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루고 있는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도 조사되지 않았다. 남원 괴양리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된 가야계 분묘유적에서는

50) 하나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농토에서 이탈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농토에 안착시키는 ‘游食者歸農策’이며, 다른 하나는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성을 추쇄해 오는 ‘人口推刷策’이다.

51) 盧重國, 『百濟 武寧王代の 集權力 強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第21輯, 公州大學校附設 百濟文化研究所, 1991.

52) 여기서 가야지역은 유구의 속성과 유물의 조합상이 서로 흡사하고 생활권이 같은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을 가리킬 것으로 짐작된다. 전북 동부지역에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대규모 철산개발에 참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서로 반절씩 섞여있다. 게다가 가야토기의 본격적인 등장도 백제의 인구추쇄책이 추진된 시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발판으로 백제는 512년 任那四縣, 513년부터 3년 동안 己汶과 帶沙를 두고 가야 소국 반과와 갈등관계에 빠진다.

『일본서기』 계체기 6년조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별도로 표를 올려 임나국이 上嘑喇·下嘑喇·娑陀·牟婁 4현을 청하였다.(중간 생략) 이에 물건을 하사하면서 칙서를 첨부하고 표문에 따라 임나의 4현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임나사현이 경남의 서남부지역⁵³⁾과 낙동강 중류지역⁵⁴⁾으로 비정되었는데, 1990년대 이르러서는 기문·대사와의 관련성을 근거로 전남 동부지역으로 비정된 견해⁵⁵⁾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섬진강유역에 속하지 않는 여수반도와 순천, 광양 일대로 비정한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종래에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임나사현을 비정하였는데,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지 않고 운봉고원과의 친연성이 확인된 섬진강 하류지역과 여수·순천·광양으로 그 범위를 넓혀 수정하였다. 섬진강 상류지역에는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갈라진 두 갈래의 봉수로와 관련하여 10여 개소의 봉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섬진강 하류지역에서는 봉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운봉고원의 가야세력과 가야토기의 속성이 상통한다. 게다가 운봉고원 일대에서 남해안 방향으로 진출하려면 대부분 섬진강 하류지역을 경유해야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기문의 위치비정은 경북 금릉군 개령으로 보는 견해,⁵⁶⁾ 섬진강 중류지역과 섬진강 중류지역⁵⁷⁾에서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보려

53) 김정학, 『任那と日本』, 小學館, 1977; 丁仲煥, 『日本書紀 繼體·欽明紀의 加羅關係記事研究』, 『釜山史學』 2, 釜山史學會, 1978.

54) 千寬宇,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55)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 정음문화사, 1985; 李根雨, 『熊津·泗此期の 百濟와 大加羅』,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朴天秀,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形古墳을 통해 본 5~6世紀 韓半島와 日本列島』, 『百濟研究』 43,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6; 이동희, 『백제의 전남동부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한국고고학회, 2007; 정재운,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김영심, 『백제의 지방 지배 방식과 섬진강유역』,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56) 千寬宇, 앞의 논문, 1991; 金鉉球, 『百濟의 加耶進出에 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70, 東洋史學會, 2000.

57) 金泰植, 앞의 책, 1993; 林永珍, 『湖南地域 石室墳과 百濟의 關係』, 『湖南考古學의 諸問題』, 湖南考古學會, 1997;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이동희, 『전남동부지역의 가야 계토기와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 한국상고사학회, 2004;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軍史』 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김영심, 앞의 논문, 2008; 박현숙, 『백제의 섬진강유역 영역화와 가야와의 관계』,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

표 1. 任那四縣 및 己汶, 帶沙 기존의 위치 비정(백승옥, 2007 참조)

연구자	任那四縣의 위치 비정				己汶·帶沙 위치 비정		출 전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기문	대사	
今西龍	晋州	熊川	河東?	固城	南原	河東	今西龍 (1922)
末松保和	榮山江 東岸		구례	전남서부	섬진강	河東	末松保和 (1956)
金廷鶴	咸陽·山淸				河東郡 일대		金廷鶴 (1977)
丁仲煥	경남의 서남방면						丁仲煥 (1978)
千寬宇	義城郡 多仁		漆谷郡 仁同	醴泉	金陵郡 開寧	達城郡多 斯·河濱	千寬宇 (1991)
全榮來	麗水半島	여수 돌산도	順天	光陽	南原	河東	全榮來 (1985)
延敏洙					南原 任實	河東	延敏洙 (1988)
田中俊明					번암(상기문) 남원(하기문)	河東	田中俊明 (1992)
金泰植					南原 任實	河東	金泰植 (1993)
李永植					南原	河東	李永植 (1995)
林永珍					南原		林永珍 (1997)
李根雨	전남 장흥		순천	광양 보성	남원	하동	李根雨 (1997)
郭長根					운봉 고원	곡성군 고달면	郭長根 (2013)
白承忠	하동(다리=대사)		남원?		남원	하동	白承忠 (2000)
金鉉球					김천시 개령	대구시 달성군	金鉉球 (2000)
李東熙	여수		순천	광양	남원	하동	이동희 (2004)
김병남	돌산도	여수	곡성, 구례, 순천	광양	南原 任實	하동	김병남 (2006)
朴天秀	여수지역		순천	광양	구례·곡성·순 창·남원·임실	하동	朴天秀 (2006)
백승옥					낙동강 섬진강	하동	백승옥 (2007)
李東熙					남원	하동	이동희 (2007)
김영심	여수·순천·광양				남원 임실	하동	김영심 (2008)

연구자	任那四縣의 위치 비정				己汶·帶沙 위치 비정		출 전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기문	대사	
박현숙					남원·장수·입실	하동	박현숙 (2008)
정재윤					남원·입실	하동	정재윤 (2008)
朱甫暉					장수지역 (상기문) 하기문 (운봉고원)		주보돈 (2011)
金在弘					운봉고원 (상기문) 하기문 (장수군)		김재홍 (2011)

는 주장⁵⁸⁾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문을 同名異地로 보고 섬진강유역과 낙동강 중류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도 있다.⁵⁹⁾ 1990년대 이후에는 경북 금릉군 개령의 주장이 거의 퇴색되었고, 지금은 대부분 섬진강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를 따른다. 가야 소국 기문이 섬진강유역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일제강점기 지명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섬진강유역으로 기문을 비정한 주장이 발표된 것이 한 세기의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문이 섬진강유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고고학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야 소국의 존재를 가장 진솔하게 증명해 주는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42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밀집된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고원 일대까지 그 공간적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상·중·하기문을 비정하였다.⁶⁰⁾ 그런데 진안고원의 장수군은 금강유역에 운봉고원은 남강유역에 속해 섬진강유역과는 모두 수계를 달리한다.⁶¹⁾ 이제까지 호남 동부지역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上己文의 위치를 다시 조명하려고 한다.

회사, 2008 ; 정재윤, 앞의 논문, 2008.

58) 朴天秀, 앞의 논문, 2006.

59) 이를테면 『翰苑』의 基汶河를 섬진강유역으로, 『新撰姓氏錄』의 己汶을 낙동강 중류지역으로 비정하였다.

60) 주보돈, 『5~6세기 금강상류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항방』,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2011 ; 김재홍, 『전동북부지역을 둘러싼 백제·가야·신라의 지역지배』,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2011.

61) 당대 초기의 백과사전으로 장초금이 저술한 『翰苑』 백제전에는 진안고원을 적셔주는 금강이 基汶河가 아닌 熊津河로 소개되어 있다.

백제의 변방에 있는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耽羅 등의 소국들이 백제에 부용한다.(『양직공도』 백제국사전)

『梁職貢圖』⁶²⁾에 상기문이 백제 변방의 소국으로 등장하여 그 존재가 확인된다. 상기문은 또한 우록 12곡명 중 上·下奇物로 등장⁶³⁾하고 있기 때문에 6세기 1/4분기까지도 가야 소국의 하나로 여전히 존속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줄곧 기문이 섬진강유역에 있었던 곳으로 비정되었지만,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진 40여 기의 말(몰)무덤만 발견되었다. 말(몰)무덤이 자취를 감춘 이후 가야계 중대형 고총을 비롯하여 수장층 묘제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조영되지 않았다.⁶⁴⁾ 아직까지는 섬진강유역에서 가야 소국의 존재를 방증해 주는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고원에서만 마한의 말(몰)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마침내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더욱 대형화된다.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백제의 영향력이 갑자기 강하게 미쳐 마한의 말(몰)무덤이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바뀐다.⁶⁵⁾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고원은 서로 수계를 달리하고 있지만 삼국시대의 봉수망으로는 서로 긴밀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⁶⁶⁾ 따라서 가야계 고총의 분포양상과 그 발전상을 근거로 6세기 1/4분기까지 가야 소국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방증된 곳은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고원으로만 한정된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진안고원의 장수군은 금강유역에 속하고 운봉고원은 남강유역에 위치하여 수계상으로도 서로 달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翰苑』⁶⁷⁾ 百濟傳에는

括地志에 말하기를 熊津河는 나라의 동쪽 경계로부터 나오고 서남쪽으로

62) 양나라의 元帝 蕭繹이 그린 臣圖로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사절을 그림으로 그려 해설한 것이다.

63) 田中俊明, 『于勒十二曲と大加耶聯盟』, 『東洋史學研究』 48-4, 1990.

64) 섬진강유역에서는 5세기 말엽부터 6세기 전엽 영산강유역에서 갑자기 등장한 전방후원분, 영산강식 석실, 진주·고성·의령 등 서부경남지역에서 성행한 구주계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U자형 전용옹관묘, 墳周土器도 출토되지 않고 있다.

65)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고원에서 4세기 말엽부터 가야토기가 처음 등장하고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본격 조영되기 시작한다.

66)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시작된 한 갈래의 봉수로가 운봉고원의 서쪽 자연경계인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67) 중국 당대 초기의 백과사전으로 장초금이 저술하고 옹공예가 주를 달았다. 여러 서적에서 어구를 발췌하여 모아놓은 것으로 현존하는 최고 백과사전인 수의 『北堂書鈔』와 함께 육조시대 옛 백과사전의 스타일이 남아 있다.

흐르고 나라의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는 것이 백리이다. 또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강폭이 넓은 곳은 30보이다. 물이 지극히 맑다.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는데, 원천은 그 나라에서 나온다. 원천이 그 나라의 남쪽 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그 안의 水族은 中夏와 같다.(『한원』 백제전)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今西龍은 基汶河가 섬진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섬진강유역에서 기문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해 주는 근거로 보았다. 금남호남정맥의 팔공산 서북쪽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상류지역인 섬진강댐까지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이곳에서 그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꾼 뒤 줄곧 동남쪽으로 흘러 광양만에서 남해안으로 들어간다. 금남호남정맥과 호남정맥 산줄기 사이를 통과하는 섬진강 상류지역은 평야의 발달이 매우 미약하지만 중·하류 지역에는 수량이 풍부해지고 그 폭도 넓어져 강으로써 모든 위용을 갖추어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반면에 백두대간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은 계속해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임천강과 만난다. 임천강은 운봉고원의 남쪽, 즉 세절산 서북쪽 기슭 금샘에서 발원하여 운봉고원을 풍요롭게 적셔준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한데 모아 줄곧 동남쪽으로 흐른다. 임천강 발원지의 위치와 물줄기의 흐르는 방향이 사료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운봉고원을 적셔주는 임천강 본류인 남강이 『한원』의 기문하를 가리킬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진안고원의 장수군은 웅진하인 금강의 최상류로 기문하와 관련이 없다. 아래의 사료에서도 기문과 운봉고원의 관련성을 읽을 수 있다.

임나국이 상주하여 말하였다. “신국의 동북에 三巴汶[上巴汶·中巴汶·下巴汶]의 땅이 있는데 사방 삼 백리 정도 됩니다.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나 신라국과 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만 서로 계속하여 백성이 살기에 어렵습니다. 신이 청컨대 장군을 보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다면 곧 귀국의 부로 삼겠습니다.(『신찬성씨록』 좌경황별하 길전연조)

위의 사료는 기문의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단 기문은 임나와 신라가 서로 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문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삼국시대 때 신라의 영향력이 서쪽으로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을 알려주는 고고학 증거로 알려진 신라의 단각고배⁶⁹⁾는 진안고원의 무주군과 운봉고원에서 나왔다.



그림 6.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수대경

운봉고원에서는 단각고배보다 그 시기가 앞서는 신라계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진안고원의 금산군·진안군·무주군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신라토기가 상당량 수습되었다.⁷⁰⁾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에서 수습된 20여 점의 신라토기와 백제토기가 무풍초등학교와 구천초등학교 등 3개소에 보관되어 있다. 신라토기는 대각부에 지그재그로 투창이 뚫린 이단투창고배와 대부광구장

경호, 파수부잔 등이 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5세기 말엽으로 추정된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게 되자, 이를 틈타 신라가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최근 20여 개소의 제철 유적이 발견된 무주군 무풍면 일대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대구, 성주를 거쳐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무주군 무풍면 일대로 신라의 진출은 철산지를 장악하려는 신라의 국가전략이 숨어 있다. 백제는 멸망할 때까지 철산지 신라의 무산현을 탈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섬진강유역에서만 신라계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도 나오지 않았다. 사료에서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롭다는 것은 대규모 철산개발로 융성하였던 운봉고원의 발전상과 사회상을 웅변해 준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철제초두와 계수호,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의 금동신발과 수대경이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동시에 운

68) 김종만, 『백제토기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2007.

69) 이밖에도 진안고원의 금산·진안군에 속한 금산 장대리와 진안 승금리에서 신라의 단각고배가 나왔다. 단각고배는 배부와 각부의 비율이 3:1 정도로 그 시기가 무령왕릉의 연대(523~529)보다 늦고 대가야의 멸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0)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에서 수습된 20여 점의 신라토기와 백제토기가 무풍초등학교와 구천초등학교 등 3개소에 보관되어 있다. 신라토기는 대각부에 지그재그로 투창이 뚫린 이단투창고배와 대부광구장경호, 파수부잔 등이 있는데, 고배류를 제외한 유물의 속성은 진안 황산리 출토품과 상통한다.



그림 7. 남원 월산리 M6호분 출토 토기류



그림 8. 월산리 M5호분 출토 토기류

봉고원이 ‘위세품박물관’이자 ‘가야토기박물관’으로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철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왕성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물물교환으로 대변되는 현물 경제로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상급의 위세품과 가야토기를 기문국으로 보낸 증거물이다.⁷¹⁾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삼진강유역과 진안고원의 장수군은 기문의 공간적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나와 신라가 서로 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만 계속하여 백성이 살기 어려운 곳은 어디였을까? 전북 동부지역으로 신라의 진출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대구, 성주를 거쳐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진안고원의 무주군으로, 다른 하나는 창령과 합천, 함양을 경유하여 운봉고원으로 곧장 나아가는 루트이다. 가야계 분묘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무주군 무풍면에서는 백두대간의 덕산재로⁷²⁾를 따라 6세기 이전에 이미 신라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 진안 와정토성과 인접된 진안 황산리, 무주 대차리에서 신라토기가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에 부장된다.

반면에 운봉고원은 6세기 중엽 경 신라토기가 가야계 수장층과 하위계층 분묘유적에서 처음 등장한다. 남원 봉대리 2호분에서 단각고배를 비롯하여 신라토기와 가야토기, 백제토기가 함께 나왔다. 전북 동부지역으로 신라의 진출이 권역별로 얼마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철의 왕국 기문국에 대한 백제의 후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제와 가야의 교류관문이자 대규모 철산지인 운봉고원에 백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무주군 무풍면은 羅濟通門⁷³⁾ 동쪽으로 응

71) 당시에 운봉고원의 철을 확보하기 위해 기문국으로 보낸 물품으로는 쌀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역색이 강한 가야토기류가 상당량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72) 공주-논산시 연산면-황룡계-논산시 벌곡면-금산군 진산면-금산분지-금산군 부리면-지삼치-무주읍 용포리-무주읍-무주군 설천면-나제통문-무주군 무풍면-백두대간 덕산재-성주-대구-경산-경주로 이어진다.

73)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자리한 나제통문은 높이 5m, 길이 10m의 인공 석굴로 일제강점

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신라가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신라의 영향권에 편입시킨 대규모 철산지⁷⁴⁾이다. 또 다른 사료를 통해서도 기문의 위치를 다시 추론해 볼 수 있다.

吉田宿称의 시조인 鹽乘津은 대왜인이다. 후에 국명을 따라 삼기문의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은 결국 백제에 예속되었다. 염승진의 팔세손인 달술 吉大尙과 그 동생 少尙 등이 회토심이 있어서 서로 연이어 來朝하여 의술을 대대로 전하고 문예에도 능통하였다. 그 자손들이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하여 吉田連의 성을 받았다. (『속일본후기』 승화 4년 6월조)

위의 사료에 의하면 吉大尙 집안은 대대로 三己汶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백제에 예속된 이후 백제의 신민이 되었고, 7세기 중반 길대상 때는 백제의 중앙관직인 達率까지 진출하였다. 백두대간을 넘어 운봉고원의 철산지로 백제의 진출 과정은 문헌에서 두 차례 확인된다. 첫 번째는 백제 무령왕이 513년부터 3년 동안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두고 가야 소국 반파[伴跛(叛波)]와 치열한 공방을 펼칠 때이다. 당시 백제와 반파의 갈등은 섬진강유역에서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는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으로 결국 백제가 승리함으로써 운봉고원과 그 주변 지역이 백제에 예속되었다.

이 무렵 운봉고원에서 가야계 고층의 매장주체부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뀌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가야계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 백제묘제의 영향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곳이 운봉고원이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복속시킨 백제는 530년대까지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는 가야진출이 확인되지 않는 소강상태를 이룬다. 백제는 운봉고원의 기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곧 행사하다가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⁷⁵⁾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일시에 상실한다. 그리하여 운봉고원의 분묘유적에서 시상대를 비롯한 신라묘제가 나타나고 신라토기도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운봉고원의 철산지를 정치적으로 복속시킨 무령왕은 백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성왕 때는 한강유역의 수복과 함께 사비로

기 때 뚫었다.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양쪽 지역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 삼국시대 때 나제통문을 경계로 서쪽은 백제의 赤川縣, 동쪽은 신라의 茂山縣 소속이었다. 웅진기 동안 백제와 신라의 사행로가 나제통문을 통과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74) 최근 무주군 생산유적 지표조사에서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5) 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 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려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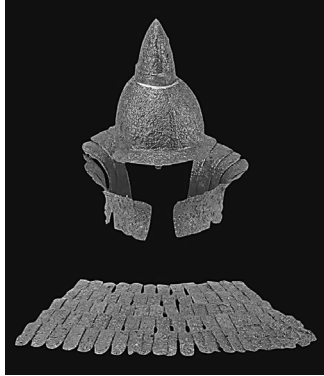


그림 9. 월산리 M5호분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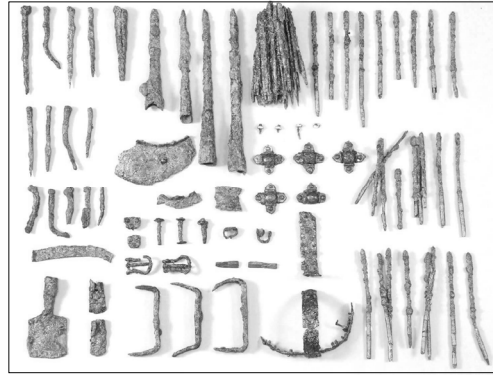


그림 10.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출토 철기류

천도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도 구축되었다. 동시에 고고학에서 보수성과 전통성을 상징하는 기문국의 묘제도 가야계 고총의 매장주체부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바뀌었다. 종래에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총족시켜 주는 곳이 삼국시대 철의 테크노밸리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운봉고원이다. 게다가 호남 동부지역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도 사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백두대간을 두 번째로 넘는 과정은 아막성 전투이다. 백제는 신라의 아막성을 차지하기 위해 20년 넘게 신라와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다시 넘기 위해 무왕 3년부터 17년(616)에서 25년(624) 사이에 벌어진 아막성 전투에서 승리함에 따라 신라의 아막성이 백제의 수중으로 다시 들어간다. 운봉고원 일대가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다가 다시 백제에 의해 탈환된 것이다.⁷⁶⁾ 당시에 운봉고원에 살던 사람들이 급기야 백제인화 되었고, 길대상이 7세기 중반 백제의 중앙 요직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의 아막성 전투는 대규모 철산지 운봉고원을 차지하기 위한 철의 전쟁이었다.

운봉고원의 기문국 등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계 철의 왕국들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됨에 따라 동북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장인집단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대거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에서 철기문화의 발전이 전북 동부지역 철 도래인들의 이동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차양이 달린 북발형 투구, 역자형 비대칭 철촉 등 철기유물이 일본에서 출토되었고,⁷⁷⁾ 일본에서

76) 어떻게 보면 가야 소국 기문국을 두고 513년부터 3년 동안 반파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첫 번째 경우와 똑같다.

77) 유영춘,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2018.

니켈이 함유된 철기류가 상당량 나온 것이 이를 방증해 준다. 여기에 중국계 계수 호와 수대정도 포함되어,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였다. 전북 동부지역의 제철유적은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진 동북아 아이언로드⁷⁸⁾이자 기문국의 블랙박스라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V. 맺음말

우리나라를 종단하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이 서쪽에 진안고원이 있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호남지방을 동부 산악지대와 서부 평야지대의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금남호남정맥이 전북 동부지역을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유역으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과 호남정맥 사이 섬진강유역이, 금남정맥 서쪽에 만경강유역이 위치한다. 조선시대 십승지지에서 그 이름을 올린 운봉고원은 신선의 땅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진안고원은 달리 호남의 지봉으로 불린다. 섬진강유역은 가야와 백제문화가 공존하여 문화상으로 漸移地帶와 완충지대를 이루었다. 최근에 삼국시대 산성 및 봉수,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드러낸 만경강유역은 교역망이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져 줄곧 문물교류의 허브역할을 담당했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공헌도가 높은 것이 소금과 철이다. 한나라 무제가 제정하여 시행한 소금과 철의 전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鹽鐵論』으로 전북은 염철론의 큰 무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북 서부지역에서 소금과 동부지역에서 철이 생산됐는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전북을 달리 ‘東鐵西鹽’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전북에서 생산된 소금과 철이 전북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많은 세력집단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종래에 전북은 자연환경에 근거를 두고 ‘東高西低’로 널리 회자됐는데, 유적과 유물 등 고고학에 바탕을 두고 ‘동철서염’으로 부르고자 한다. 전북의 ‘동철서염’은 마한과 익산의 백제, ‘전북가야’⁷⁹⁾ 후백제 등의 왕조를 전북에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

78) 동북아 아이언로드를 복원해 보면 제나라 전횡 혹은 고조선 준왕-전북혁신도시-전북 동부지역(장수 남양리, 지리산 달궁계곡)-일본까지 이어진다.

79)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임실군·순창군·진안군·무주군·완주군, 충남 금산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든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용어는 학술적인 의미보다 올곧은 가야사의 복원을 위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있음을 밝혀둔다.

전북 서부지역에서 200여 개소의 패총이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마한의 분구 묘로 밝혀진 말(몰)무덤도 20여 개소에 달한다. 새만금⁸⁰⁾으로 상징되는 전북 서부 지역에서 해양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소금의 생산과 유통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제나라 전횡의 망명과 고조선 준왕의 남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쳐진다. 새만금 일대에 말(몰)무덤과 관련된 마한 소국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소국들은 소금을 생산하던 해양세력이거나 아니면 해상교역을 주도했던 정치집단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때도 마한의 해양문화와 그 역동성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백제가 공주와 부여로 도읍을 옮긴 뒤 군산, 군산도를 거쳐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가 다시 열림으로써 백제의 해양문화가 더욱 발전하였다.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에서 백제가 번창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으로 ‘동철서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에 전북 동부지역에서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의 운봉고원과 서쪽의 진안고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운봉고원에서 30여 개소와 진안고원에서 120여 개소, 섬진강유역에서 30여 개소, 만경강유역에서 2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동시에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은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보였다. 그리고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진안고원의 ‘장수가야’가 가야 소국으로 발전하는데 대규모 철산개발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무엇보다 ‘장수가야’는 가야 소국들 중 유일하게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위치하여 가야의 영역을 금강유역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소국 기문국은 4세기 후엽 늦은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중엽 경까지 가야 소국으로 존속하였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서쪽의 자연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고, 백제와 가야의 문물교류의 관문, 대규모 철산개발과 교역망을 통한 철의 생산과 유통이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몰)무덤과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최상급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등 가야 소국들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철의 왕국 기

⁸⁰⁾ 호남평야의 심장부인 김제·만경평야를 달리 ‘金萬平野’라고 부르는데, ‘새만금’은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문국에 보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 무령왕의 진출로 백제묘제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6세기 중엽 경 신라에 정치적으로 편입되었다.

금남호남정맥 동쪽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은 둔 '장수가야'는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등장해 가야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복속되었다.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과 관할, 대규모 구리와 철산개발,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통과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장수 노곡리 말(몰)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조영되었다. 장수 동촌리 가야계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이 나와 '장수가야'가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응축된 당시에 철의 테크노밸리였음이 입증되었다. 금강 상류지역에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장수가야'는 한마디로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제국이자 9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되는 봉수왕국이다. 동시에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 최상류에서 유일하게 가야문화를 꽃피웠던 가야 소국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의 가치는 그 보존과 활용에 있다고 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은 대부분 잡목과 잡초 속에 갇혀 있거나, 지금도 가야계 고총의 봉분을 평탄하게 다듬어 밭농사를 짓고 있다.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북가야'의 인식 결여와 무관심에서 기인한다. 영남지방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학술발굴을 통해 그 실체가 일목요연하게 밝혀짐으로써 26개소의 가야문화유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다행히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국가 사적 제542호로 지정됨으로써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를 위한 첫 마중물이 되었다. 최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대상 목록에 선정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로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2017년 11월 25일에는 1500년 전 백두대간 속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모든 가야세력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삼국시대 때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역동성을 세상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북가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호남 사람들이 오갔던 화합의 무대인 백두대간 치재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탑'도 세웠다. 그리고 '전북가야'의 고총과 제철유적, 봉수 및 산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행정당국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시에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영호남 화합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



그림 11.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발굴 이전(상)과 이후(하) 정비 복원된 모습

도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⁸¹⁾ 전북 동부지역에 42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 90여 개소의 봉수를 남긴 전북가야사가 올곧게 복원되는 그날까지 ‘전북가야’를 꼭 기억했으면 한다.

■ 투고일 2018년 8월 1일 |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30일 ■

⁸¹⁾ 김낙중, 『남원지역 고분군의 성격과 보존 및 활용 방안』, 『문화재』 제51권·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참고문헌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2014
- 郭長根,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書景文化社, 1999
- 곽장근,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2011
- _____,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제52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5
- 곽장근·유영춘,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 호남고고학회, 2012
- 김낙중, 「남원지역 고분군의 성격과 보존 및 활용 방안」, 『문화재』 제51권·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軍史』 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金世基,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
- 김영심,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과 섬진강유역」,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 김재홍, 「전동북부지역을 둘러싼 백제·가야·신라의 지역지배」,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2011
- 김정학, 『任那と 日本』, 小學館, 1977
- 김종만, 『백제토기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2007
- 金鉉球, 「百濟의 加耶進出에 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70, 東洋史學會, 2000
- 盧重國, 「大加耶의 성장기반」,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高靈郡·韓國古代史學會, 2004
- 盧重國, 「百濟 武寧王代의 集權力 強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第21輯, 公州大學校附設 百濟文化研究所, 1991
- 박순발,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 朴天秀, 「大伽耶의 古代國家 形成」, 『碩晤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6

- 朴天秀,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形古墳을 통해 본 5~6世紀 韓半島와 日本列島」, 『百濟研究』 43,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6
- 박현숙, 「백제의 섬진강유역 영역화와 가야와의 관계」,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 백승욱, 「己汝·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대 가라국과 백제」,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 申鍾煥, 「陝川 冶爐와 製鐵遺蹟」, 『陝川 冶爐 冶鐵地 試掘調査報告書』,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
-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 유영춘,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제51집, 호남고고학회, 2015
- _____,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2018
- 李軍, 「鷄首執壺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2017
- 李根雨, 「熊津·泗泚期の 百濟와 大加羅」,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 李道學, 「谷那鐵山과 百濟」, 『東아시아 古代學』 제25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11
- 이동희, 「전남동부지역의 가야계토기와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 한국상고사학회, 2004
- _____, 「백제의 전남동부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한국고고학회, 2007
- 이영범,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금속유물의 제작기법」, 『東垣學術論文集』 14, 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3
- 李熙濬,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
- 이희준,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林永珍, 「湖南地域 石室墳과 百濟의 關係」, 『湖南考古學의 諸問題』, 湖南考古學會, 1997

- 全北大學校 博物館, 『南原地方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全北地方
文化財 調査 報告書 第6輯, 1987
- 전상학, 『마한·백제시대의 전북혁신도시』,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호남고고학회, 2016
- _____,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
학회, 2017
- 全榮來, 『完州 上林里 出土 中國式 銅劍에 關하여』, 『全北遺蹟調査報告』
第6輯, 全羅北道博物館, 1976
- _____,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 정음
문화사, 1985
- 정재운,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 丁仲煥, 『日本書紀 繼體·欽明紀의 加羅關係記事研究』, 『釜山史學』 2, 釜
山史學會, 1978
- 조명일, 『전북가야의 봉수 운영과 역사성』,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
회, 2017
- _____,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
학회, 2018
- 朱甫暎, 2008, 『새로운 大伽耶史의 정립을 위하여』, 『嶺南學』 제13호, 경북대
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주보돈, 『5~6세기 錦江上流 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向方』, 『대구사학』 106, 대
구사학회, 2012
- 千寬宇,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 하승철, 『남원지역 가야고분의 구조와 변천』, 『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 한수영,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 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두
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
원, 2016
- 今西龍, 『己汶伴跋考』, 『朝鮮古史의 研究』, 近澤書店, 1922
- 田中俊明, 『于勒十二曲と大加耶聯盟』, 『東洋史學研究』 48-4, 1990
- _____, 『大加耶聯盟의 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Abstract

Ancient Tombs in Yugok-ri and Durak-ri, Namwon, the Hub of Northeast Asia's Cultural Exchanges

Kwak, Chang-Keun

The guidebook on South Korea's traditional geography is Sangyeongpyo (『山經表』) which is symbolized by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he Unbong Plateau in the east side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is a typical plateau area at altitudes of around 500m, and the ancient tombs in Yugok-ri and Durak-ri, Namwon are located in this plateau. Gimunguk, which was a small country of the Gaya lineage based in the Unbong Plateau, first appeared in the late fourth century, and continued to exist as a small country of the Gaya lineage until the mid sixth century. The mountain range of the Baekdudaegan served as a natural fence on the country's western side, and the Unbong Plateau was a gateway to cultural exchanges between Baekje and Gaya.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country's growth wa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r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iron mines and trade networks. The existence of Gimunguk was archeologically proven by the excavation of about 180 mal(mol) tombs, medium and large-sized ancient tombs of the Gaya lineage, and the highest-grade prestige items. In addition to Baekje, small countries of the Gaya lineage such as Daegaya and Sogaya sent the best-quality prestige items and earthenware to Gimunguk, the kingdom of iron, to obtain nickel and iron that were produced in the Unbong Plateau. Later in the early sixth century, Gimunguk accepted the Baekje Mound System in earnest with the advance of Baekje's King Muryeong, and then was politically subjected to Shilla around the mid sixth century. As the Gaya-lineage kingdoms

of iron, which were based in eastern Jeollabuk-do including Gimunguk in the Unbong Plateau, politically subjected to Baekje or Shilla, a group of artisans who worked on iron may have crossed the sea and moved to Japan.

Key Words : Sangyeongpyo, Baekdudaegan, Unbong Plateau, Yugok-ri, Durak-ri, Gimunguk, Daegaya